탈북 여성을 향한 세 겹의 시선*

: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문학적 형상화에 관한 고찰

김소륜 **

차례

1. 들어가며
2. 남한 작가 소설에 나타난 정형화된 시선과 오해되는 타자들
3. 탈북 작가 소설에 나타난 복원되는 시선과 균열하는 타자들
4. 조선족 작가 소설에 나타난 '사이(間)'의 시선과 유동하는 타자들
5.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오늘날 한국 사회 내에서 '외국인'보다 더 낯선 타자로 치부되고 있는 '탈북자'에 관한 고찰을 통해 '타자'의 '타자성'에 관한 사유를 시도하고 있다. 이때 주된 연구 대상은 '탈북자'라는 소수자 내에서 또다시 '여성'이라는 중첩된 타자화를 요구받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다. 이들은 젠더· 자본· 계급에 의해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최근의 한국 소설 내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물군(群)이다. 본고는 이러한 탈북 여성들이 남한의 기성 작가, 실제 탈북을 경험한 북한 출신 작가, 나아가 조선족 출신 작가의 작품들 속에서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남한 작가들의 작품에 그려진 탈북 여성들은 동정과 연민이라는 시선 속에 정형화되고 있음이 지적된다. 이는 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타자에 관한 사유라는 점에서, 탈북 여성들의 문제를 동질화시킨다

* 본 논문은 교육부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의 게재료 지원을 받았음.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는 문제를 야기한다. 반면 실제 탈북을 경험한 작가의 작품에서는 탈북 여성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층적인 균열을 통해, 탈북 여성들이 '타자'라는 이름 안에서 동질화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족 출신 작가의 작품에서는 '타자(조선족)'가 바라보는 '타자(탈북자)'의 문제를 통해 '타자'가 지닌 무수한 균열과 틈새, 그 규정될 수 없는 '타자성'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어 : 탈북자, 탈북 여성, 타자, 타자성, 『청춘연가』, 조선족 작가

1. 들어가며

20세기의 주된 사유는 '주체'의 문제로 모아진다.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를 통해 제기된 의심하는 주체로부터 라캉의 분열된 주체, 데리다의 해체적 주체, 푸코가 주목한 권력에 의해 규율화된 주체,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 들뢰즈의 유목적 주체, 버틀러의 수행중인 주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주체 이론들을 통해 문학 작품을 사유해왔다. 그런데 문학작품을 통해 사유되는 주체들이란 결국 '타자'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타자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나'와 세계는 물론 '나'와 '나 자신'을 연결해주는 필수불가결한 매개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국현대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소외된 '타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이 남긴 정신적· 육체적 상흔(傷痕)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주변인들은 70-80년대에도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소외된 타자들로 형상화되어 왔다. 또한 90년대 이후에는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의 구분을 통해 스스로를 '타자화' 시키는 인물들이 문학의 한 장(場)을 채워나갔다. 그렇다면 21세기 문학의 주된 특징으로 언급되는 '타자'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탄생'이 아닌 '발견'이 될 것이다.

2000년대 문학의 주된 특징은 이러한 타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내에 등장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문학 내에서만큼은 더 이상 소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타자의 문제 가운데, 우리와 가장 닮은 타자라고 할 수 있는 '탈북자'[1]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외국인들보다 '더' 낯선 타자로 우리 사회의 주변부를 맴돌고 있다. 우리와 동일한 기원,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비(非)국민'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2] 본 논문의 출발점은 이처럼 가장 닮은, '그러나 혹은 그래서' 배제되는 타자를 향한 사유의 재고(再考)로부터 비롯된다.

우선 '탈북'이라는 사건은 분단된 한반도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이념적 대립이 팽배했던 70-80년대까지만 해도 '탈북'은 주로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야기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주로 경제적 이유로 탈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3] 이는 탈북이라는

1) '탈북자'는 "국경선과 제3국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국해 오는 주민"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갖는다. 이러한 탈북자를 지칭하는 말은 시대에 따라 변모되어 왔다. 법적 용어가 처음 등장한 1962년에는 '월남귀순자'로, 1978년부터는 '귀순용사'로,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귀순북한동포'로 표현되었다. 이후에는 북한이탈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변화되었다. 2017년 현재, 서울시는 5월 17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체할 용어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정립되지 못한 용어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탈북자'의 문제와 맞물린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탈북자'에 관한 정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168&cid=46626&categoryId=46626, 2017.04.30.)를 참고하였다.

2) 김은하, 「탈북여성과 공감/혐오의 문화정치학」, 『여성문학연구』 38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94쪽.

3) 박덕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정치적 디아스포라가 경제적 디아스포라로 전이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박덕규·이성희,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15쪽.

사건이 '생존'이라는 본질적인 차원과 결부됨을 의미한다. '탈북'이 한반도 내의 특수한 사건이 아닌,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소설들 속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최종 종착지로 남한을 상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중국, 다시 영국으로 이주하는 탈북소녀 '바리'[4]로부터 벨기에 브뤼셀을 향하는 청년 '로기완'[5]에 이르기까지, 남한은 더 이상 탈북자들의 최종 정착지로 귀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던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유입이 2012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6]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에 망명했거나 처음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북한 국적자) 수는 모두 1천 675명인 것으로 집계"될 만큼, 탈북자들의 선택이 남한이 아닌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고 있음도 주지할 지점이다.[7] 이는 '탈북자' 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 내의 특수성으로 국한될 수 없음을 가시화한다. 따라서 최근 문학 작품에 나타난 '탈북자'에 관한 연구는 분단문학의 연장선이라는 범주를 넘어 '디아스포라'와 '다문화 담론'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대상이 바로 '탈북 여성'이다.[8] 기존

---

4)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5)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 창비, 2011.
6)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2017.05.03.)
7) "탈북자 EU 망명길 좁아졌나…김정은 체제 출범 후 신청 급감", 『연합뉴스』, 2016.06.1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3/0200000000AKR20160613094300009.HTML?input=1195m. (2017.05.03.)
8) 소설에 등장하는 탈북 여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김윤정, 「디아스포라 여성의 타자적 정체성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3집,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135-151쪽; 김은하,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 『찔레꽃』,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5집, 한국문학회, 2010, 365-394쪽; _____, 「탈북여성과 공감/혐오의 문화정치학」, 『여성문학연구』 38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91-314쪽; 김자영, 「이대환의 『큰돈과 콘돔』으로 본 탈북여성 이주민의 주체화에 관한 고찰」, 『이화어문논집』 31권, 이화어문학회, 2013, 1-20쪽; 김효석,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7집, 중앙어문학회, 2014, 305-332쪽; 소영현, 「여성, 이주(移住)와 정주(定住) 사이 :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 국경을 넘는 여성들」,

의 디아스포라 논의는 주로 '민족의 이산'이라는 거대담론 내에서 "재외 한인의 민족적 정체성의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온 경향이 강했다.[9] 그 결과 젠더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 최근에 와서 '탈북 여성'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파악된다.

2017년 3월, 남한 사회에 입국한 탈북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무려 8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10] 이러한 수치는 '여성 탈북자'에 관한 독립적인 고찰을 요구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이때 주목할 점은 상당수의 탈북 여성들이 납치 및 인신매매를 통한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인권 유린의 피해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11] 우리 사회가 지닌 젠더, 자본, 계급에 관한 구조적 모순이 탈북 여성들을 향한 정신적, 물질적 폭력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탈북 여성들은 최근 우

『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65-91쪽; 연남경, 「이주여성 재현의 서사학적 분석」, 『현대소설연구』 6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217-246쪽; 유경수, 「다원적 소통을 향한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7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437-461쪽; 이길연, 「북한 탈북자들의 유랑과 디아스포라 공간: 정도상의 연작소설집 『찔레꽃』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08, 241-247쪽; 이덕화, 「탈북여성 이주 소설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409-431쪽; 이미림, 「유동하는 시대의 여행과 이주 양상 - 정도상의 연작소설집 『찔레꽃』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32호,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5, 263-286쪽; 이성희, 「탈북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남한정착과정의 타자정체성연구」, 『여성학연구』 23권 2호, 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 2013, 77-96쪽; 허윤, 「포스트 세계문학과 여성-이주-장편서사의 윤리학」, 『여성문학연구』 38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73-98쪽.

9)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4, 190쪽.

10)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2017.05.03.)

11) 최현실은 "제3국을 통해 탈북한 여성들의 70-80% 이상은 인신매매를 경험하며,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 고통을 내면화하고, 체념과 우울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탈북 여성은 탈북 남성에 비해 "인권 유린, 감금, 폭행, 강제노동, 성폭력, 인신매매, 매춘 등의 처우를 받음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압박감을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최현실, 「탈북 여성들의 트라우마와 한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연구』 21권 1호, 부산대 여성연구소, 2011, 195쪽.

리 문학 속에서 “초국적 자본의 이동과 노동시장의 재편성 속에서 국민국가가 이주와 정주의 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등과 함께 한국문학이 새롭게 주목한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2] 그렇다면 한국 작가들의 작품 속에 그려진 탈북 여성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보다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김은하는 탈북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표 소설인 정도상의 연작 소설집 『찔레꽃』과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두고 “한국의 진보주의 작가들의 국경에 대한 상상력”이 “오리엔탈리즘의 이분법, 지배자 주체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13] 또한 일련의 소설들이 여성의 이동을 성적 수난의 궤적에서 초점화함으로써 탈북여성이 경험하는 인권문제를 ‘섹슈얼리티화’하고 있음도 문제 삼고 있다.[14] 비슷한 맥락에서 김미현 역시 2000년대 발표된 탈북자 소설들이 탈북자가 지닌 타자로서의 고유성과 현실성을 오역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장 한국적인 타자의 현실을 첨예하게 보여줄 수 있는 탈북자 소설”이 “보편적이고 관념적인 타자의 재생산”을 반복함으로써 “탈북자가 지닌 타자로서의 고유성과 현실성을 오역”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15]

이에 본 논문은 남한의 기성작가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오해하고 있는 타자의 타자성에 관한 고찰을 시도한다. 나아가 실제 탈북을 경험한 작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타자인 ‘조선족’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탈북 여성의 이미지를 살펴보고 ‘타자’의 고유한 ‘타자성’에 관한 본격적인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

12) 김은하(2016), 앞의 논문, 292쪽.
13) 김은하,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 『한국문학논총』 55집, 한국문학회, 2010, 390쪽.
14) 김은하(2016), 앞의 논문, 299쪽.
15) 김미현, 「타자의 역설과 자기오역」, 『번역트러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57쪽.

2. 남한 작가 소설에 나타난 정형화된 시선과 오해되는 타자들

'탈북' 문제는 한국 문학사 안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간첩'을 포함한 탈북자들이 한국 문학의 주요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문학적 접근은 몇몇 개별 작품에 한정되어온 경향이 강하다. 이때 주된 연구 대상은 황석영의 『바리데기』, 정도상의 『찔레꽃』, 강영숙의 『리나』이다.[16] 세 작품은 모두 여성 탈북자, 그것도 성인이 아닌 소녀들이 국경 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공통항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부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차별성을 보여준다. 『리나』의 주인공 '리나'는 여전히 국경 주변을 맴돌고 있으며, 『찔레꽃』의 '충심은 남한 사회에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주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바리데기』의 '바리'는 영국이라는 제3의 공간에서 나름의 안정적인 가정을 구축하지만, 여전히 주변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공통항은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변부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도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再考)하게 한다. 이는 한국 소설에 나타난 탈북자들의 삶을 '북한에서의 삶, 중국 생활, 국경 건너기, 이주국에서의 삶'이라는 네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최병우의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17] 최병우의 분류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삶이란 북한에서는 기아와 공포로, 중국에서는 불법체류의 고통과 강제송환

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에 검색한 결과, 황석영의 『바리데기』에 관한 연구는 학위논문을 포함해 대략 80여 건으로 확인된다. 고전 서사무가의 주인공인 신화적 존재를 차용한 본 소설은 민족주의, 다문화, 디아스포라, 고전과 현대의 차용, 문화콘텐츠, 통일 시대 문화 교육, 한국문학의 세계화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상의 『찔레꽃』 연작에 관한 논의가 학위논문을 포함해서 약 18편, 강영숙의 『리나』에 관한 논의가 학위논문을 포함해 약 10편 내외라는 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에 관한 논문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17) 최병우, 「탈북이주민에 관한 소설적 대응 양상」, 『현대소설연구』 제61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323-353쪽.

의 두려움으로, 국경 건너기에서는 생사(生死)를 가르는 수난으로, 이주국 사회에서는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로 모아진다. 현재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소설들은 연구자가 분류한 이상의 네 측면 내에서 거의 대부분 접근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도식화는 문학 안에서 탈북자들을 또다시 타자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고찰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 문학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서사는 대부분 그들을 향한 동정과 연민에 집중되어 있음이 문제적이다. 여성들은 하나같이 인신매매에 의해 성적 착취를 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철저히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있다. 정도상의 『찔레꽃』[18] 연작에 등장하는 '충심'은 조선족 인신매매단에게 속아 사촌 미향과 함께 농촌에 살고 있는 한족에게 팔려간다. 그 가운데 미향은 밤에는 남편에게, 낮에는 시아버지에게 성적 착취를 당하고 정신이상이 되어 죽음에 이른다. 황석영의 『바리데기』[19]에서도 주인공 '바리'의 언니는 인신매매를 당해 시골 한족 사내에게 팔려가고, 바리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사창가로 팔려나간다. 이대환의 『큰돈과 콘돔』[20]의 표창숙 역시 한족 농민에게 팔려간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강희진의 『포피』[21]에서도 인신매매단에게 속아 가난한 조선족 농민에게 팔려간 탈북 여성이 등장한다. 또한 정수인의 『탈북여대생』[22]에 등장하는 설화 역시 농촌에 사는 한족의 아내로 팔려가는데, 그녀는 조직적인 인신매매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되팔리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일련의 소설들 속에서 탈북 여성들은 한결같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매매되고 교환되는 성적 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탈북 여성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철저한 피해자로만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겪은 고통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닌, '탈북 여성'이라는 고유명사 속에서 동질화되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

18) 정도상, 『찔레꽃』, 창비, 2008.
19) 황석영, 『창비』, 2007.
20) 이대환, 『큰돈과 콘돔』, 실천문학사, 2008.
21) 강희진, 『포피』, 나무옆의자, 2015.
22) 정수인, 『탈북여대생』, 새울, 2009.

나아가 탈북 여성에게 가해진 수난의 서사가 젠더와 자본의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그녀들의 고통이 신제국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만든다.

또한, 소설 속에 그려진 탈북 여성들이 대부분 성적 대상자로서 매매되고 있다는 설정은 '탈북 여성'을 '몸을 파는 여성' 즉 '창녀' 이미지로 정형화시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설 속에서 탈북 여성들은 몸을 파는 일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찔레꽃』의 충심과 『세 번째 집』[23]의 탈북자 혜교는 노래방에서 몸을 파는 일에 종사하고, 『포피』의 혜진은 대학원을 다니지만 키스방에서 매니저로 일을 한다. 탈북여성을 향한 이와 같은 시선은 『탈북여대생』의 설화가 순대를 보고 구역질을 하자, 화자와 그의 아내가 '분명 설화가 임신을 했고 몰래 중절수술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일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설화의 구역질은 굶주림으로 인해 사람고기로 '피순대'를 만들어 팔 수밖에 없던 비극적인 사건과 연결된다. 이러한 오해는 탈북 여성을 몸을 파는 여성으로 정형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탈북 여성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야기하는 '비극의 서사'가 타자의 고유성을 외면한 채, 주체가 상상한 '환상' 속에서 재단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환상'이란 타자의 고유성을 배제한 '주체의 시각'에서 정형화된 타자에 관한 오해라고 볼 수 있다.[24]

그런 면에서 강영숙의 『리나』[25]는 탈북 여성의 서사를 새로운 차원에

---

23) 이경자, 『세번째 집』, 문학동네, 2013.

24) 이는 김은하가 황석영의 『바리데기』 속 '바리'를 순응적이며 이타적인 동양 여성의 유아성과 모성성을 구현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비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여성-동양에 대한 표상"은 오리엔탈리즘을 반복하고 있으며, 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국경넘기'는 여성의 수난사라는 진부한 형식을 반복한다"(386쪽)는 지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자는 정도상의 『찔레꽃』에 대해서도 "한 남한 지식인 남성의 잃어버린 애정 대상으로서 북한을 여성 젠더로 표상하고, 남근적 욕망의 경계 속에서 여성을 찾는 구도를 벗어나지 못"(376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은하(2010), 앞의 논문.

25) 강영숙, 『리나』, 문학동네, 2011.

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소설의 주인공인 '리나'는 "소녀이면서 어머니이고, 이성애자이면서 동성애자이며, 강간과 매춘의 피해자이자 살인, 사체유기 등을 저지르는 가해자로서 어떤 분류나 정의에도 들어맞지 않는 무규정성"을 드러내는 "혼돈적 존재"로 그려지기 때문이다.[26]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국소설에 나타난 "이주민 재현의 이분법"은 물론, '성녀'와 '악녀'라는 "전통적인 여성 재현 방식"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27] 무엇보다 오늘날 탈북 여성들이 '미결정적'이고 '불확정적'인 존재로서 '혼종적' 혹은 '제3의 공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28] 리나는 탈북 여성의 실질적인 현주소를 드러냄은 물론, 기존의 남한 작가들 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 이미지에 관한 새로운 고찰을 가능하게 한다.

16살 소녀 리나는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화학약품 공장으로 끌려간다. 그곳에서 '네모반듯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탈출 이후에도 인신매매를 통해 몸을 파는 여성으로 살아간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끌려가서는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지만, 폭발사건 이후 트럭 운전사에게 강간을 당할 위기에 놓이는 등 여전히 성적 유린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리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 속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할아버지를 동시에 살해한 가해자라는 점에서 탈북 여성에게 주어진 정형성을 탈피한다. 무엇보다 리나는 남한으로 상정된 P국으로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타의 인물들과 달리 스스로 '국경을 떠도는 삶'을 선택한다. 리나가 국경을 떠도는 배경에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소설들에서 여성들의 '국경 넘기'는 거의 대부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찔레꽃』의 '충심'과 '미향'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조선족 여인의 거짓말에 의해, 『바리데기』의 '바리'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뿔뿔이

26) 김은하(2016), 앞의 논문, 309쪽.
27) 연남경, 「이주여성 재현의 서사학적 분석」, 『현대소설연구』 62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234쪽.
28) 소영현, 「여성, 이주(移住)와 정주(定住) 사이: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 - 국경을 넘는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22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72쪽.

흩어져버린 가족들로 인해, 『큰돈과 콘돔』의 표창숙과 『탈북여대생』의 설화 역시 북한 사회의 궁핍과 굶주림을 이유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게 된다. 이들에게 탈북은 '선택'이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주변 환경에 의해 내몰린 우연적 사건에 가깝다. 때문에 그녀들은 자신이 떠나온 세계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는 『찔레꽃』 연작에서 안마소를 찾은 손님이 자신의 배를 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만큼은 근사하지 않나?"는 농담을 건네자, 충심이 "장군님하고 함부로 비교하지 말라우요. 어드르 감히?"(158쪽)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된다. 이외에도 소설에 등장하는 다수의 탈북 여성들은 자신이 떠나온 사회를 비판하는 것을 부끄러운 행동으로 여김이 발견된다.

물론 리나의 탈북 역시 어느 날 갑자기 "같이 탈출할 사람들을 만났어. 우리도 이 나라를 뜨자."(11쪽)라고 말하는 아버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녀가 국경을 떠돌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이다. 화공약품공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리나는 탈출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헤어진 가족들을 발견한다. 그런데 리나는 가족들에게 향하는 대신 공장에서 함께 탈출한 외국인 소년 '삐'와 거리로 나선다. 그리고 전직 가수인 할머니와 함께 '유사 가족'을 형성한다. 결말에 이르러서도 P국에 정착한 가족들로부터 "여기에 네 방이 있다. 빨리 오길 바란다!"(342쪽)라는 편지를 전해 받지만, 리나는 P국을 향하는 대신 자신이 번 돈을 가족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만 남기고 돌아선다. 이처럼 리나는 지속적으로 기존의 가족 구도로부터 미끄러져 내린다. 삐와 할머니의 죽음 이후에는 거리에서 만난 4명의 소년들에게 "너희들 이제부터 나를 엄마라고 불러"(345쪽)라고 말하며 국경 주변을 떠돌 뿐이다.

앞서 언급한 소설들에 등장하는 탈북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인신매매를 통해 농촌 사회의 아내로 팔려간다. 여성들은 '아내'라는 이름으로 가부장적 질서 안에 강제 편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돈을 주고 사온 물건으로 취급되며, 철저하게 행동을

감시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성(性)을 유린당한다. 『포피』에 등장하는 탈북여성은 하룻밤에 네 형제랑 한 번씩 잠자리를 보내고, 낮이 되면 지쳐 자리에 몸져눕는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자에게 "돈을 얼마나 주고 데려왔는데, 밤낮을 잠만 잔다"(54쪽)는 비난을 가한다. 탈북 여성들은 가족제도 내에서 '아내'라는 이름을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적 유린과 노동력 착취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닌 남성적 지배질서의 폭력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끊임없이 가족 제도 바깥으로의 탈주를 시도하는 리나의 선택은 남성적 폭력에 대한 능동적인 저항의식을 드러낸다. 이는 리나가 봉제공장 언니랑 맺는 동성애를 통해서도 뒷받침되는 지점이다.

또한, 중국에서 농촌으로 팔려간 여성들은 언어와 문화의 괴리(乖離)를 경험한다. 누구도 그녀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 하지 않는다. 탈출을 방지하고자 그녀들에게 자신들의 말도 가르치지도 않는다. 탈북 여성들은 철저하게 발화를 거세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리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주저없이 발설한다. 전직 가수인 할머니의 노래를 무성의하게 관람하는 지역 공무원들을 향해 "도대체 지금 이게 뭘 하는 겁니까"(151쪽)라고 외치고, 공장 남자의 신고로 들이닥친 경찰들을 향해서는 "두 발을 뻗고 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182쪽)댄다. 이외에도 리나는 공연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 오늘의 이야기. 열여섯 살에 국경을 넘어 지금은 열여덟 살이 된 여자애 이야기. (중략) 그래서 나는 매일 밤마다 그에게 얘기를 들려줬어요. 국경을 넘은 얘기, 신발이 터진 얘기. (중략) 그랬더니 그가 말했어요. 네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면 만나게 해주지.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거짓말을 했어요. 첫날밤을 치르기 위해서. (밑줄: 인용자)
>
> -『리나』, 114-115쪽.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리나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매

일매일 거짓말을 했다는 말조차도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진실'하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여자애 이야기" 곧, 리나 자신의 서사는 그녀가 스스로 구축해낸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나 『리나』에서도 한국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탈북 여성의 한계가 발견된다. 결말 부분에서 리나는 선교사 장에게 자신이 모은 돈을 주며 P국에 있는 식구들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중국에서 끊임없이 팔려 다니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몸을 지키던 『찔레꽃』의 충심이 남한 사회에서 결국 몸을 파는 여성이 되어 버린 것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충심은 힘겹게 남한 사회에 진입한 후에, 국경을 떠돌면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던 '몸을 파는 일'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한 사회에서 이루어진 그녀의 '몸 팔기'가 그녀의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충심이 몸을 파는 이유는 북에 남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이고, 죽은 미향 대신 이모에게 돈을 보냄으로써 아직 미향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건네기 위해서이다. 『큰돈과 콘돔』의 표창숙도 남한 사회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다. 『세 번째 집』의 성옥도 북에 남은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부친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북에 남겨진 가족을 구하고자 '오늘'을 살아나간다. 탈북 여성을 통해 주목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가 버린 그녀들은, 그 속에서 버려진 가족들을 '자발적으로' 구원하는 위치에 선다는 사실이다.

탈북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적 유린과 착취는 개인의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로 대변되는 지배질서가 여성에게 가한 구조적 폭력의 문제로 확대된다. 따라서 탈북 여성들이 경험한 수난의 서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로 대변되는 지배질서가 책임져야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소설들에서 발견되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은 국가의 책임을 너무도 손쉽게 떠맡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때의 '국가'는 '탈북'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녀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방조한 신제국주의라는 초국가적 차원에

서 접근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폭력의 주체에는 '남한' 사회도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 작가의 작품에 그려진 탈북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팔고, 돈을 보내는 것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위해 생명수를 구하러 떠난 서사무가 속 '바리데기'를 향한 초혼(招魂)이 아닐까한다. 그녀들이 구해온 생명수는 자본의 논리 안에서 '돈'으로 대체된다. 그렇다면 한국 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들은 결국 바리데기들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리나'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탈북 여성의 정형화가 일정 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3. 탈북 작가 소설에 나타난 복원되는 시선과 균열하는 타자들

크리스테바는 "문학이란 저자와 독자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질병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29] 문학을 통해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드러내고, 비로소 치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탈북을 경험한 작가들이 자신의 탈북 경험을 서사화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소설'을 통해 지나온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세계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려하던 과거의 분위기와 달리, 2000년대에는 자신이 겪은 북한 사회와 탈북 과정에 대한 기억을 서사화하는 작가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30] 그러나 아쉽게도 문

29) 노엘 맥아피,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부순 역, 앨피, 2007, 99쪽.

30) 북한에서 활동하던 기성문인 가운데 남한 사회에서 문학 활동을 이어가는 인물들로는 김대호(『영변 약산에는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 상·하권, 북치는 마을, 2004./『동방의 독수리』, 북치는 마을, 2012.), 김유경(『청춘연가』, 웅진씽크빅, 2012./『인간모독소』, 카멜북스, 2016.), 김혜숙(『인간이고 싶다』, 에세이 퍼블리싱, 2009), 리지명(『삶은 어디에』, 아이엘앤피, 2008.), 최진이(『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 북하우스, 2005.) 등이 있다. 해당 내용은 김효석(앞의 논문, 310-311쪽)의 논문을 참고

학적인 면에서 탈북 작가들의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그들의 작품이 주로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날것 형태로 '증언'하는 수기류의 기록 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극적인 트라우마를 기록하겠다는 강한 욕망으로 인해 "개인의 경험이 집단적, 사회적 의식으로 확장되지 못한 채 주관적이고 생생한 논픽션의 목소리가 작품 표면에 거칠게" 형상화되고 있는 까닭이다.[31] 따라서 탈북자 출신 작가들의 작품 대부분은 "강렬한 기억의 형상화와 증언에 대한 욕망"을 토대로 "내용의 유사성, 단순함 등을 초래"[32]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된다.

그런 면에서 2012년도에 발표된 탈북 작가 김유경의 『청춘연가』[33]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김유경의 소설은 일반적인 탈북 작가들의 재현 욕망에 따른 수기 중심성에서 상당 부분 탈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전의 기록문학과는 달리 소설의 미학적 측면과 허구성을 바탕으로 탈북자의식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려는 증언문학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이 유의미하다.[34] 그 결과 탈북 작가의 작품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김유경의 소설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35]

하였다.

31) 김효석, 앞의 논문, 309쪽.

32) 서세림,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 - 탈북자의 디아스포라 인식과 정치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83쪽.

33)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1-130쪽.

34) 김효석은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두고 "탈북자의식의 다양성"과 "다양한 뿌리내리기 과정과 새로운 정체성 찾기를 허구적 인물의 다성적 목소리"를 소설화한 최초의 작품이라고 분석하였다; 김효석, 앞의 논문, 313-314쪽.

35) 현재까지 발표된 김유경의 『청춘연가』에 관한 연구는 크게 네 편 정도로 압축된다. (김효석, 앞의 논문; 서세림, 앞의 논문;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 탈북 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권 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1-21쪽; 이영미, 「현대소설교육에서의 또 하나의 다문화성: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 문학정체성의 의미화와 관련하여」, 『평화학연구』, 15권 1호, 한국평화통일학회, 2014, 73-92쪽. 이때 최초의 논의에 속하는 권세영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의 인물형상화에 있어 '주체의 문예이론'적 특성 고찰 - 리지명의 『장군님 죽갔시요!』,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한중

‘김유경’이라는 가명(假名)을 사용하고 있는 작가는 평양에서 작가로 활동하던 북한의 조선작가동맹 출신으로, 2000년도에 탈북한 40대의 여성이라는 정보만이 알려져 있다.[36] 한국 사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삶으로 인해 파편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타자적 존재’로 부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면에서 그녀의 작품은 기존의 탈북자를 소재로 한 소설에 나타난 ‘타자’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근거를 제공한다. 물론 작품 내에서 주인공 선화가 탈출하여 남한에 이르는 과정, 선화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선화를 향한 성철의 헌신적인 사랑, 특히 결말에 이르러 시한부 선고를 받는 선화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선화의 중국인 남편이라는 진부한 설정들이 산재(散在)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연가』 속에는 탈북 여성을 동일한 타자의 이름으로 동질화하거나 전체화하려는, 기존 문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김유경은 탈북 여성을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라는 ‘동일성’으로 환원해 온 기존의 문학 작품에서 벗어나, 탈북 여성들 내에 존재하는 균열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비슷한 또래의 경옥과 미선의 관계를 통해 형상화된다.

> 경옥과 미선이 싸우고 난 뒤 여자들은 묘하게 두 패로 갈렸다.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 간 여자들은 곱게 한국으로 들어온 여자들을 미워했다. 반면 한국에 먼저 온 가족들이 줄을 놓았거나, 미선네처럼 북한에서부터 돈을 뿌리며 한국으로 직행한 소수의 여자들은 저희들끼리만 소통했다. 그리고 탈북자라고 다 같이 대접을 받는 것에 억울해했다. (중략) “돈에 팔려 여성의 존엄을 짓밟힌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의 수난자들이에요.

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13, 373-379쪽)는 본격 논문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발표문 형식에 머물고 있기에 제외하였다.

36) 작가는 “실명은 물론 나의 과거 행적을 밝힐 수 없으며 숨어서 손만 간신히 내밀고 세상에 이 소설을 보낸다. 그것은 나의 몸 절반이 아직도 북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김유경(2012), 앞의 책, 318쪽.

> 탈북자 여성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 이때였다. 갑자기 미선이가 얼굴이 발개져 흥분하여 말했다. / "아니에요. 탈북자들이라고 해서 다 돈에 팔려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탈북자 여자들이라고 다 같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수치스러워요. 이런 인터뷰에 참가한 게 창피해요." (밑줄: 인용자)
>
> -『청춘연가』, 71쪽.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미선의 발언을 통해 '탈북 여성'이라는 동일한 대상 내에서도 계급과 자본에 의한 타자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탈북 여성의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내에서 재단할 수 없음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뿐만 아니라 탈북 여성들이 경험한 인신매매와 성적 유린이라는 동일한 경험 역시 동질화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물론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성적 유린을 당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피해자의 서사를 구축한다. 『청춘연가』의 중심인물인 선화, 복녀, 경옥 모두 인신매매로 인해 성적 착취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상처 극복의 과정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우선, 주인공 선화가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는 복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중국 남자에게 팔려가 2년간 노예처럼 지내다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하지만 또다시 인신매매를 당해 한족 사내에게 팔려간다. 복녀는 중국말을 배우면 도망갈까봐 말을 가르쳐주지 않는 시집살이 가운데에서도 악착같이 중국어를 배우고, 결국 딸과 함께 탈출하여 남한 사회 진입에 성공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복녀는 남한 사회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시작해 어엿한 식당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심지어 북한 사회에서는 자신보다 훨씬 계급이 높았던 미선 엄마를 종업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반면 선화가 돌보고 챙겨주는 동생 경옥은 가난과 굶주림을 벗어나고자 무작정 기차를 타고 집을 나섰다가 인신매매를 통

해 노래방 도우미로 전전하게 된 인물이다. 자신이 임신한 사실도 모른 채 남한에 들어온 경옥은 아이를 낳아 입양 보내고,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래방 도우미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때 복녀와 경옥의 삶은 표면적으로 남한 사회에 동화된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접근하면 전혀 반대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복녀는 자신이 탈북자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데, 이는 그녀가 식당에서 만들어 파는 '북한식 순대'를 통해 가시화된다. 복녀의 식당이 성공한 이유는 그녀가 자신이 탈북자임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고통을 가감 없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복녀는 자본주의 논리에 편승하여 '북한식' 음식을 단순히 상품성의 차원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북한식 순대'는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복녀의 적극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옥은 중국에서 일하던 노래방 도우미 일을 지속하는데, 이후에는 일본으로까지 이주하는 등 남한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인물로 비춰진다. 그러나 경옥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 사실 북한에서는 말할 것 없고 중국에서도 한국 돈 100만원이면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100만 원이 너무 작아 보인다. 꽃제비로 지내면서 시장에서 주웠던 북한 돈 300원이 그토록 커보이고 마음까지 든든했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 돈 100만 원도 성에 차지 않는다. (중략) 경옥은 한시바삐 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 불탔다. 지나온 경험으로 돈만이 사람을 귀하게도 만들고 천하게도 만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돈이면 만사 오케이라는 것이 경옥의 견해다. (밑줄: 인용자)
>
> -『청춘연가』, 186-187쪽.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옥은 그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동화된 인물이다. 이렇듯 복녀와 경옥을 통해 탈북 여성

의 정체성은 단일하게 재단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이는 주인공 선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북한에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던 선화는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고자 돈 1,000원을 받고 한족 남성에게 팔려간다. 같은 한족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했다는 남편의 열등감은 선화를 향한 가혹한 학대로 이어진다. 심지어 자기 형과 공모해 선화를 윤간하고, 선화가 딸을 낳은 이후에도 감시와 폭력을 지속해나간다. 그 가운데 선화는 우연히 나타난 제자 성철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여 남한 사회에 진입한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위한 작은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을 하며 살아간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복녀의 서사와 큰 차별점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선화에게는 복녀와 달리 중국에 남겨놓은 딸이 존재한다. 선화는 자신이 버리고 온 딸 '메이밍'의 존재를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 남한도 북한도 아닌 곳에서, 혼혈아로 존재하는 메이밍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선화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 그럼에도 선화는 오로지 도망칠 생각만 했다. 하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젖을 먹이는 3년 동안 꼼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딸은 여러 가지로 속상한 존재였다. (중략) 그러나 선화는 딸을 버리지도 가지지도 못한다. 딸을 과거로부터 분리시키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잊지도 못한다. 선화는 복녀가 부러웠다. 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에 몰두하는 것도, 지금 딸을 데리고 의지하는 것도 부러웠다. (밑줄: 인용자)
>
> -『청춘연가』, 102-103쪽.

위의 인용문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선화에게 있어 '딸'은 버릴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자신의 과거를 상징한다. 탈북 여성들에게 있어 인신매매를 통해 낳은 아이는 그녀들의 삶에 가해진 폭력을 가시화한다. 그녀들에게 가해진 고통이 결코 과거의 기억이 될 수 없는, 현재적 사건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결과 탈북 여성들은 아이로 인해 탈출을 포기하거나, 탈출

에 성공했어도 아기를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결과 선화 역시 반쪽짜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유입되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게 떠돌 수밖에 없는 타자로 남는 셈이다. 바로 이 지점이 탈북 여성의 문제를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목숨을 건 탈출이라는 서사만으로 동질화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선화는 아이를 통해 삶의 원동력을 발견하는 복녀와도, 아이를 입양 보낸 뒤 일상으로 완벽하게 복귀한 경옥과도 다른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차별성은 복녀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막힌 인생사를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재미있게 들려"(17쪽)줄 수 있는 반면, 선화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절대로 자기의 입으로 그 과거를 말할 용기가 없다"(20쪽)고 진술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리차드 커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윤리적인 행동을 서사, 즉 '이야기하기'라고 정의하였다.[37]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기'는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통로가 된다. 이야기를 통해 카타르시스적 체험인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서사화하지 못한다면, 애도를 통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없다. 따라서 상처받은 주체는 내면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고 만다. 그런 면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 가운데 복녀의 삶이 유독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함으로써 애도하고 회복해 나갈 근거를 제공받은 까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결말에 이르러 선화가 불치병으로 생을 마감할 위기에 놓인다는 설정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이외에도 하나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탈북 여성들은 각기 다른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무산 여자 신영애는 중국에서 함께 살던 남편을 데려오고, 회령 여자 강화영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 다소 작위적으로 읽히는 탈북 여성들의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적응기는 '탈북여성'을 연민과 동정의 대상인 '피해자'로 규정해온 주체의 시선에 균열을 가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37) 리처드 커니, 『이방인·신·괴물』, 개마고원, 이지영 옮김, 2004, 319-342쪽.

4. 조선족 작가 소설에 나타난 '사이(間)'의 시선과 유동하는 타자들

박덕규는 한국 문학 안에서 탈북자를 주요인물로 다루는 소설을 크게 '한국에 정착한 사람'과 '제3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한 바 있다.[38] 이는 주로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인데, 최근에는 한국에 진입한 탈북 작가들의 창작활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의 기성작가들의 작품과 탈북자가 주체가 되어 창작된 작품들에 관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39] 이러한 가운데 이영미[40]는 북한을 탈출한 이들이 창작한 탈북자들의 작품을 '탈북자 창작 문학'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실화소설의 서사군을 '탈북자 창작 소설'로 정의하고, 남한 작가들의 탈북자 소재 문학에 대해서는 '탈북자 소재 문학'과 '탈북자 소재 소설'로 명명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앞으로 탈북자를 소재로 삼고 있는 문학의 범주가 점차 확장되고, 그 분류가 보다 세분화 될 것임을 유추하게 한다. 본 장에서는 여기에 하나의 층위를 더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으로 분류되어온 '조선족'[41] 출신 작가의 작품에 드러난 탈북 여성의 형상화에 관한 논의이다.

중국 길림성의 작은 조선족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금희'[42]는 현재

---

38) 박덕규·이성희, 앞의 책, 326쪽.
39) 김효석, 앞의 논문, 307쪽.
40) 이영미(2014), 앞의 논문.
41) 중국 조선족의 선조들은 1860년대 이후에 이민한 조선인들로 알려져 있다. 원래 '조선족'이란 개념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1948년경부터 조선민족이라는 개념이 쓰이다가 1952년에 연변 조선민족 자치구가 성립되고, 이 자치구가 1995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개칭되면서 조선족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전월매, 「"타자"시각에서 본 한국현대소설 속의 조선족 이미지 연구」, 『겨레어문학』 54권, 겨레어문학회, 2015, 152쪽.
42) 본명은 김금희로, 2007년에「개불」로 『연변문학』에서 주관하는 '윤동주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국 문단에는 『창작과비평』(2014년 봄호)에 단편 「옥화」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윤재민은 금희의 소설에 쓰인 '한국어'를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계를 환기시켜주는 자리에서 쓰이는 언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그녀의 소설은 모국어와 모어 사이에 놓인 '빗금이 쳐진 언어(/)'로 이루어졌으며, 빗금 쳐진 틈새를 통해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계뿐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조선족 문학계에서 젊은 세대 고유의 문학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43] 2015년도에 한국에서 출간된 첫 소설집 『세상에 없는 나의 집』[44]에는 조선족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탈북 여성에 관한 두 편의 단편 「옥화」와 「노마드」가 실려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타자(조선족)'가 바라보는 '타자(탈북자)'의 문제라는 점에서, '타자'가 지닌 무수한 균열과 틈새, 그 규정될 수 없는 '타자성'의 본질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앞서 서술한 남한 작가, 탈북자 출신 작가의 작품에서 그려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탈북 여성이 드러난다는 점이 눈에 띈다.

> "나도 그런 줄 알았죠 뭐.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일자리 알아봐준 사람들이 꽤 있었나보더라고요. 보모는 힘들어, 그냥 밥만 하는 자리는 너무 멀어, 공장일은 위험해, 어느 회사 청소자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아니 요즘 세월에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건 뭐 찬밥 더운밥 다 가리니. 글쎄요, 여기저기 아프다고는 하던데 어느 집사님이 사준 쌀주머니는 잘도 메고 가더라니, 그 말을 어디까지나 믿을 수 있겠나요." (중략) "뭐, 북에서 온 사람이 이 자매님이 처음도 아니고, 그전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말이 많았잖아요." (밑줄: 인용자)
>
> – 「옥화」, 70쪽.

> "신났네, 신났어…… 알제 뭐야? 지가 신고하고도 씁쓸한 척하는 거지?" 박철이의 등 뒤에서 다른 종업원들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 "위낙에 북한 애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니까. 어제는 고아랬다가, 오늘은 강원도 출신이랬다가……." (밑줄: 인용자)
>
> – 「노마드」, 234쪽.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경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오혜진 외 3인, 「[좌담] "이게 대체 누구 탓이란 말이오……"; 2015년 여름의 한국소설」, 『문학동네』 제22권 제3호, 문학동네, 2015, 4쪽.

43) 백지연,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창비, 2015, 273쪽.

44) 금희,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창비, 2015.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탈북 여성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로 그려진다. 이는 기존의 남한 사회에서 그려지던 탈북자의 이미지와 매우 색다른 지점이다.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탈북자 소재' 문학 안에서, 조선족들은 대부분 순진한 북한 여성들을 속여 매매하거나 성적으로 유린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남한 작가의 작품인 『찔레꽃』 연작에는 순진한 '충심'과 '미향'을 속여 인신매매단에게 넘기는 조선족 여인이 등장한다. 그녀는 식당에서 한달만 일하면 오천 위안을 준다며 미향과 충심을 꾀어내고는 인신매매 조직에게 "지금 물건 개꾸 간다."(68쪽)고 전화를 건다. 그녀는 미향과 충심을 '물건'으로 명명하며,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소녀들을 팔아넘기는 무자비한 사기꾼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충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공안당국에 신고를 하는 파렴치한도 모두 조선족들이다. 뿐만 아니라 『탈북여대생』의 주인공 설화는 지속적으로 한족 남성들에게 팔려 다니는데, 설화를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조직단은 모두 조선족들이다. 이 밖에도 『청춘연가』에는 '선화'를 중국인 남편에게 중계하는 조선족 뚜쟁이 영감이 등장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순진한 북한 소녀들을 유인해 인신매매를 일삼는,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속물적인 존재들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 금희의 소설에 등장하는 조선족들은 국경을 떠도는 탈북자들을 돕고, 오히려 그들에게 베푼 호의를 배반당해 상처를 입는 등, 기존의 한국 문학에서 볼 수 없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옥화」의 주인공 '홍'은 남편과 함께 작은 건축자재 가게를 운영하는 조선족 여인으로 등장한다. 소설은 '홍'의 현재에 과거의 기억이 파편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현재와 과거라는 시간 속에는 서로 다른 탈북 여성들이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홍'의 믿음을 배반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공통항을 갖는다. 2년 넘게 교회 기도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홍'은 어느 날 2달 남짓 기도모임을 함께 하던 탈북 여성(이하 '여자'로 명칭)으로부터 "이땀에, 내 한국 가믄 절대 갚을 거니께, 돈 쫌 꿔주시라요?"(66쪽)라는 요구를 받는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홍'은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라는 성경구절을 떠올리며 자신의 비상금을 내어주고자 한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맡긴 돈을 달라는 듯한 '여자'의 태도에 "아니, 내가 왜?"(72쪽)라고 반문하며 내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돈을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갈등은 '홍'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 배가된다.

> "어제 우리 목회자 운영회에서 그 자매님이랑 얘기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국으로 떠나려는 게 무리가 아니냐, 여기서 합당한 일을 찾고 마음 맞는 사람 만나 사는 건 왜 안되느냐고. 참, 여태 그렇게 도와주고 해도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입만 벌리면 변명에, 돈 달라는 말뿐이니, 쯧쯧."
>
> – 「옥화」, 72쪽.

위의 인용문을 통해 드러나듯이 '여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이나 정직한 양심 따위마저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73쪽)으로 묘사된다. 이는 앞서 서술한 남한 작가와 탈북 작가의 작품에 그려진 탈북 여성의 이미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여자는 두만강을 헤엄쳐 탈북에 성공하지만 이내 '사람 장사꾼'에게 붙잡혀 '산골 오지'로 팔려간 과거를 지니고 있다. 그곳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며 아이까지 낳았다는 '여자'의 고백은 그동안의 탈북 여성들의 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작품들이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을 주로 1인칭 시점으로 초점화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탈북자에 대한 감정이입을 극대화시켰다면, 금희의 소설은 철저하게 '탈북자'를 대상화함으로써 객관적 거리를 설정한다. 이러한 거리는 '타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태도에 관한 물음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때의 타자는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환원되는데, 기독교인으로 설정된 '홍'에게서 나타나는 갈등의 뿌리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율법이 자리함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홍'은 '여자'의 부탁을 듣는 순간, 가난한 형제자매를 구제하라는 '야고보

서 2장'을 떠올린다.

종교적 가치관에 따른다면 '홍'은 가진 것이 없는 '여자'를 마땅히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도와야만 한다. 이에 '홍'은 물론이고, 그녀가 다니는 교회의 조선족들 모두 이러한 신앙적 가르침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여자'에게 베푸는 호의가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들은 '여성'을 자신의 '이웃'이라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상하질서의 구도 속에 배치하고 있는 까닭이다.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베푸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여자'는 결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웃'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 결과 '여자'는 '홍'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나는 잘살믄 당신들처럼 안 기래요"(88쪽)라는 말을 남긴다. '홍'의 꿈에 나타난 '여자'가 "그 잘난 돈, 개도 안 먹는 돈, 그딴 거 쪼끔 던재준 거 내 하나도 안 고맙다요."(74쪽)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홍'의 내적 갈등은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뿌리에는 사오년 전에 사라진 또 다른 탈북 여성 옥화가 자리한다. 옥화는 삼십대 중반의 노총각인 '홍'의 남동생을 위해 어머니가 데려온 여자이다. 동생은 자신과 띠동갑인 어린 옥화를 만나 삶의 활력을 찾고, '홍'과 어머니는 그런 옥화에게 갖은 정성을 쏟는다.

> 오랜 시간 굶어 고깃국을 먹지 못하는 옥화에게 엄마는 미음으로 시작해 차차 쌀밥에 가물치에 사골에 우족까지 보신에 좋다는 것은 죄 구해 먹였다. / 물론 홍도 등한시할 수가 없었다. (중략) 한번씩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고기면 고기, 귀한 과일이면 과일, 옷이며 책이며 용돈은 물론이고 최신형 휴대폰에 엠피스리까지, 해줄 수 있는 것, 옥화가 부러워하는 티라도 보인 적이 있는 것이면 어떻게든 마련해보려고 애썼던 홍이다.
>
> – 「옥화」, 77쪽.

그러나 옥화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 온 홍

의 가족을 배반하고 사라진다. 소설에 묘사된 "어느 날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지는 북녘 여자들"처럼, 편지 한 장 남겨놓고 떠나 버린 것이다. 이를 통해 옥화는 기본적인 도덕이나 정직한 양심 따위가 부재한다고 손가락질 받던 '여자'와 동일시된다. 실제로 옥화에 대한 '홍'의 감정은 '여자'에 대한 '홍'의 태도를 통해 형상화된다. 그렇다면 '홍'은 왜 돈을 빌려달라는 '여자'의 요구를 당당히 거절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는 자신과 가족들을 배반한 옥화를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그것은 '홍'의 내면에 남아있는 옥화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이다. 옥화를 진정한 '이웃'으로 환대하지 못했다는, 지불되지 못한 심리적 부채가 남아있는 까닭이다. 이는 옥화에 대한 최초의 묘사가 "흔치 않은 백화점 쎄일을 만나 명품을 헐값으로 사온 듯"(75쪽) 흥분된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내 주제가 머 이거저거 가릴 주제나 되갔시오?"(85쪽)라는 '여자'의 발언은 '네가 이것저것 가릴 주제가 되느냐'라는 '홍'을 포함한 조선적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여자'를 비롯한 옥화는 그들에게 더없이 감사를 표해야 하는 동정의 대상일 뿐이다. 이웃이라는 수평적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시혜를 제공받는 수직관계 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신랄한 신세 얘기를 꺼낼 때, 여자의 눈빛 속에는 오히려 값싼 슬픔이나 비애 같은 것이 들어 있지 않았다."(85-86쪽)는 서술처럼, '여자'는 자신을 향한 동정과 연민을 거부한다. 이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소설들이 동정과 연민으로 점철되었음을 떠올릴 때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다. 탈북 여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홍'을 통해 타자에 대해 사유하는 주체의 반성을 제기하는 까닭이다.

또한, 소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탈북 여성들이 하나같이 어딘가로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옥화는 그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가 버린 북녘여자'로 묘사된다. '홍'은 그녀들이 조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끊임없이 이동해나가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저 떠나가는 게 그들의 바람"(83쪽)인 것처럼 탈북 여성들은 정주하지 않고 유동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홍의 의문에 답을 주는 것은 바로 '여자'이다. '홍'은 '여자'를 보며 "어쩌면 저런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다시는 불안하지 않을 곳으로"(83쪽)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탈북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에 가면 "합법적으루 뭐이나 할 수 있대니, 가야디요."(83쪽)라는 여자의 발언은 그 답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비법(非法) 월경을 감행한 중국 내의 탈북 여성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인물들이다. 국경을 벗어난 그녀들은 국가로부터 배제된 존재들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은 그녀들이 한국 사회에 진입한 후에도 결코 극복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산골 오지로 팔려가 "혼자 농사짓고 돼지 치고, 살림하고, 그저 죽게 일하고 살았디요. 애새끼도 하나 낳았시오."(86쪽)라는 '여자'는 도보로 이틀을 걸어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여전히 산골 오지에 묶여있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갔어요? 내는 내 배로 낳은 내 아새끼도 내삐리고 도망친 사람이라요. 더 말해 머하갔시오?"(86쪽)라는 '여자'의 진술을 통해 접근된다.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은 그녀가 안정적으로 남한 사회에 진입한다고 해도 평생을 족쇄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불안감은 어디로 가도 해소되지 않으며, 그로인해 그녀들은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변두리를 떠도는 '타자'로 부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타자의 문제는 한국에서 일하던 '시형(媤兄)'을 통해 결국 우리는 모두가 타자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한다. 시형과 같은 조선족들은 한국사회에서 "몸뚱어리 하나와 불법체류자의 신분 외에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82쪽)로 묘사된다. '홍'은 그러한 시형을 두고 "여자처럼? 옥화처럼?"(82쪽)이라고 되내인다. 북한 여성이라는 타자를 통해, 결국 우리 모두는 타자라는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단일한 위치에 고정되는 않는 타자의 유동성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러한 발견은 또 다른 단편 「노마드」에 등장하는 조선족 박철이와 수미, 그리고 탈북 여성 선아를 통해서도 반복된다. 한국에 일하러 온 박철이는 같은 조선족인 수미에게 호감을 느끼고, 수시로 그녀가 일하는 갈비

집을 찾는다. 그러던 가운데 서툰 일솜씨로 타박을 받고 있는 탈북 여성 선아를 만나고, 그녀에게 "누구는 처음부터 잘하나요?"(234쪽)라는 위로를 건넨다. 이 사건 이후 선아는 박철이에게 호감을 보이고, 그로 인해 박철이와 수미는 묘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불법체류자인 수미는 선아를 두고 "걔는 이제 한국 여자야. 개랑 결혼하면 불법 아니라니까."(241쪽)라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조선족인 수미와 박철이가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여자가 '합법적'인 삶을 갈망하듯, 조선족인 그들도 '합법적'인 삶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 선아는 어엿한 한국 사람이라는 수미의 발언은 「옥화」에서 그려지던 조선족과 탈북자의 위치가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타자의 위치는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동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역전은 조선족이 바라보는 '탈북 여성'의 이미지가 한국 문학 내에 그려진 '조선족 여인'의 이미지와 겹쳐진다는 점과도 연결해 볼 수 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인 천운영의 『잘가라, 서커스』[45]에 등장하는 조선족 여인들은 「옥화」에 등장하는 탈북 여성들처럼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이미지로 그려진다. 이처럼 탈북 여성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는 조선족 여성을 통해, 결국 '우리' 모두가 타자라는 발견이 가능해진다.

5. 나가며

박완서의 소설 속에는 "삼팔선이란 추상적인 선이 현실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대목이 등장한다.[46] 소설에서 언급된 '삼팔선'의 '추상성'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구체적인 구속력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일까?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국 현대 소설의 역사는 '삼팔선'으로 가시화되는 분단

45) 천운영, 『잘가라, 서커스』, 문학동네, 2005.
46)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씽크빅, 2002, 194쪽.

상황의 상처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쟁이 야기한 육체적 훼손, 정신적 외상, 이념적 갈등을 경험한 인물들이 오랜 시간 문학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으며, 냉전 체제의 이념적 갈등은 수많은 작품들의 소재이자 주제의식으로 그려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삼팔선'을 통해 가시화되는 분단 상황은 '탈북자'라는 새로운 인물 유형을 문학 내부로 소환하고 있다. 그 결과 탈북자들은 여전히 '분단'이라는 이념적 문제의 연장선으로 접근되는 경향이 남아있다.[47] 그러나 더 이상 탈북자 문제는 한반도 내의 특수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재독교포 2세 감독과 한국· 스웨덴· 미국· 독일 등의 다양한 국적을 지닌 스텝이 모여 탈북 여성의 삶을 다룬 단편 영화 <은이>를 제작한 사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48] 또한 '지금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반체제 작가 '반디'(가명)의 소설집 『고발(북에서 온 소설)』[49]은 19개 언어로 번역되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 20개국과 판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의

47) 고명철, 「분단체제에 대한 2000년대 한국소설의 서사적 응전」, 『韓國文學論叢』 58집, 2011, 293-317쪽; 김은아, 「이산의 비극성을 통한 분단의 현재성 고찰」, 『국제한인문학연구』 13호, 국제한인문학회, 2014, 91-114쪽; 김인경,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분단현실의 재현과 갈등 양상의 모색」, 『현대소설연구』 57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267-293쪽; 이성희, 「탈북자 문제로 본 분단의식의 대비적 고찰: 김원일과 정도상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6권, 한국문학회, 2010, 481-507쪽.

48) 김지태, "독일교포 감독 시선으로 본 탈북자의 현실:실제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제작된 영화 '은아'", 『재외동포신문』, 2016.06.09.,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1720, (2017.05.11.)

49) 북한에 거주하는 반체제작가로 알려진 작가 '반디(필명)'는 평양 인근에 거주하는 1950년생의 남성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의 소설집 『고발(북에서 보내온 소설)』(다산책방, 2017)은 2014년에 프랑스를 시작으로 일본 • 포르투갈 • 영국 • 미국 • 캐나다 • 독일 등, 21개국에서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국내판의 번역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버러 스미스가 맡았고, 지난해 영국 작가단체가 수여하는 번역상을 수상하였다. - 김기훈, "北반체제작가 '반디'가 북한의 솔제니친? 이는 절반의 진실", 『연합뉴스』, 2017.03.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9/020 0000000AKR20170329083400005.HTML?input=1195m, (최종검색일: 2017.05.10.)

삶에 관해 보이는 전세계인의 관심은 탈북자의 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 내의 특수성으로 국한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본 논문은 남한의 기성 작가, 실제 탈북을 경험한 북한 출신 작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조선족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탈북 여성'들이 각각 어떠한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탈북자 소설을 작가가 속하거나 경험한 체제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타자로서의 탈북자에 대한 상이한 관점과 접근법, 재현의 면모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남한의 기성 작가들 작품 속에 그려진 탈북 여성들에 관한 정형화된 서사를 비판하고, 그 속에서 형성된 타자를 향한 우리의 환상을 거둬내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이 자신들을 향한 동정과 연민이라는 시선 안에 갇혀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인신매매를 통해 성적 착취를 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피해자의 위치로 한정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타자'에 관한 사유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 속에서 여성들은 타자의 본질을 오해당한 채 '탈북 여성'이라는 고유명사 속에서 동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실제 탈북을 경험한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탈북 여성들이 '타자'라는 이름 안에서 동질화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오해된 타자의 타자성에 관한 복원을 위해 타자의 직접적인 발화에 주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한국 소설 속에 그려진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아닌, 탈북 여성들 내에 존재하는 다층적인 균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때의 균열은 타자를 향한 '오해'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탈북'이라는 사건이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미학적 의미를 도출하는 단계로 나아가기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남한도 북한도 아닌, 그 '사이(間)'의 시선에 주목하였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으로 분류되어온 '조선족' 작가의 작품

에 드러난 탈북 여성의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타자(조선족)'가 바라보는 '타자(탈북자)'의 문제라는 점에서, '타자'가 지닌 무수한 균열과 틈새, 그 규정될 수 없는 '타자성'의 본질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작품들이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을 주로 1인칭 시점으로 초점화함으로써 탈북자에 대한 감정이입을 극대화시켰다면, 본 소설은 철저하게 '탈북자'를 대상화함으로써 객관적 거리를 설정하고 있음이 유의미하다. 이러한 거리는 '타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태도에 관한 물음으로 확장되며, 고정되지 않고 유동하는 타자의 타자성을 발견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북한 여성이라는 타자를 통해, 결국 우리 모두는 타자라는 발견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탈북자'는 '타자'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 가운데 '탈북 여성'은 '탈북자'라는 소수자 속에서, 또 다시 여성이라는 소수자로 중첩되는 '타자화'의 문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형상화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탈북 여성'이라는 타자의 독자적인 '타자성'을 고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읽혀지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자료

강영숙, 『리나』, 문학동네, 2011.

강희진, 『포피』, 나무옆의자, 2015.

금 희,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창비, 2015.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씽크빅, 2012.

이경자, 『세번째 집』, 문학동네, 2013

이대환, 『큰돈과 콘돔』, 실천문학사, 2008.

정도상, 『찔레꽃』, 창비, 2008.
정수인, 『탈북여대생』, 새울, 2009.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김기훈, "北반체제작가 '반디'가 북한의 솔제니친? 이는 절반의 진실", 『연합뉴스』, 2017.03.29.
김지태, "독일교포 감독 시선으로 본 탈북자의 현실:실제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제작된 영화 '은아'", 『재외동포신문』, 2016.06.09.
오혜진 외 3인, 「[좌담] "이게 대체 누구 탓이란 말이오……"- 2015년 여름의 한국소설」, 『문학동네』 제22권 제3호, 문학동네, 2015.
"탈북자 EU 망명길 좁아졌나...김정은 체제 출범 후 신청 급감", 『연합뉴스』, 2016.06.13.

2. 단행본

김미현, 『번역트러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57쪽.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1-130쪽.
박덕규·이성희,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15쪽, 326쪽.
노엘 맥아피,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부순 역, 앨피, 2007, 99쪽.
리처드 커니, 『이방인 · 신 · 괴물』, 개마고원, 이지영 역, 2004, 319-342쪽.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168&cid=46626&categoryId=46626, 2017.04.30.

3. 논문

고명철, 「분단체제에 대한 2000년대 한국소설의 서사적 응전」, 『韓國文學論叢』 58집, 2011, 293-317쪽
권세영,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의 인물형상화에 있어 '주체의 문예이론'적 특성 고찰 - 리지명의 『장군님 죽갔시요!』,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13, 373-379쪽.

김윤정, 「디아스포라 여성의 타자적 정체성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3집,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135-151쪽.

김은아, 「이산의 비극성을 통한 분단의 현재성 고찰」, 『국제한인문학연구』 13호, 국제한인문학회, 2014, 91-114쪽

김은하,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 『한국문학논총』 55집, 한국문학회, 2010, 365-394쪽.

_____, 「탈북여성과 공감/혐오의 문화정치학」, 『여성문학연구』 38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91-314쪽.

김인경,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분단현실의 재현과 갈등 양상의 모색」, 『현대소설연구』 57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267-293

김자영, 「이대환의 『큰돈과 콘돔』으로 본 탈북여성 이주민의 주체화에 관한 고찰」, 『이화어문논집』 31권, 이화어문학회, 2013, 1-20쪽

김효석,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7집, 중앙어문학회, 2014, 305-332쪽.

소영현, 「여성, 이주(移住)와 정주(定住) 사이: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 - 국경을 넘는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제22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65-91쪽.

서세림,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 - 탈북자의 디아스포라 인식과 정치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2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81-104쪽.

연남경, 「이주여성 재현의 서사학적 분석」, 『현대소설연구』 6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217-246쪽.

유경수, 「다원적 소통을 향한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7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437-461쪽.

이길연, 「북한 탈북자들의 유랑과 디아스포라 공간: 정도상의 연작소설집 『찔레꽃』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08, 241-247쪽.

이덕화, 「탈북여성 이주 소설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5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409-431쪽.

이미림, 「유동하는 시대의 여행과 이주 양상 - 정도상의 연작소설집 『찔레꽃』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32호,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5, 263-286쪽
이성희, 「탈북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남한정착과정의 타자정체성연구」, 『여성학연구』 23권 2호, 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 2013, 77-96쪽
_____,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 탈북 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권 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1-21쪽.
_____, 「탈북자 문제로 본 분단의식의 대비적 고찰: 김원일과 정도상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6권, 한국문학회, 2010, 481-507쪽.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권, 한국사회학회, 2004, 189-219쪽.
이영미, 「현대소설교육에서의 또 하나의 다문화성: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 문학정체성의 의미화와 관련하여」, 『평화학연구』 15권, 한국평화통일학회, 2014, 73-92쪽.
전월매, 「"타자"시각에서 본 한국현대소설 속의 조선족 이미지 연구」, 『겨레어문학』 54권, 겨레어문학회, 2015, 151-172쪽.
최병우, 「탈북이주민에 관한 소설적 대응 양상」, 『현대소설연구』 6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323-353쪽.
최현실, 「탈북 여성들의 트라우마와 한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연구』 21권, 부산대 여성연구소, 2011, 161-204쪽.
허윤, 「포스트 세계문학과 여성-이주-장편서사의 윤리학」, 『여성문학연구』 38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73-98쪽.

Abstract

Three gazes toward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 A study on the literary imageries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the Korean contemporary novels

Kim, So-ryun

This paper attempts concerning the 'otherness' of other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regarded as strange others rather than foreigners in Korean society. The primary subject for the paper is a North Korean females defector whom the Korean society inferiorly deems in comparison with a North Korean male defector. As a character that exposes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the Korean society in terms of gender, capital, and class, a North Korean female defector has attracted the notice of Korean literary circles. This paper focuses on comparing the imageries of th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the literary works of South Korean writers, North Korean defector-writers, and Korean-Chinese writers.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female defector, others, otherness, Love Song of the Young, Korean-Chinese writer

■ 본 논문은 2017년 7월 13일에 접수되어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